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무한 매력 발산 중

## 도시 남자 이정진

주말 안방극장에서 로맨티스트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배우 이정진.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무한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는 그는 올해로 14년차 연기파 배우다. 오랫동안 가까이 하고 싶은 이정진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본다.

글 강일홍(스포츠포스트 기자)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MBC

배우 이정진(34세)은 한 마디로 도시 남자가 어울리는 연기자다. 드라마 속에선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예능프로그램에선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재간둥이다. 그런 그가 지난 1월부터 방영 중인 MBC 주말드라마 '백년의 유산'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3대째 국숫집을 운영하는 집안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에서 이정진이 연기하는 남자는 아쉬울 거 없이 자란 부잣집 외동아들 이세운. 드라마 속에서 그는 술에 취한 민채원(유진)의 늦은 귀갓길에 나타나 다정하게 에스콰트하는 모습으로 주말 안방극장의 최강 로맨티스트가 됐다. '매너남 이정진'의 평소 그대로의 모습이 투영된 듯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 모델로 시작, 14년차 연기파 배우

모델로 시작해 데뷔 14년째를 맞은 이정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파 배우다. 연기자로서 그의 진면목을 새롭게 조명할 작품은 다음 아

닌 영화 '피에타'. 이정진은 '피에타'를 통해 그간의 이미지를 뒤엎는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그는 잔인한 남자 '강도'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김기덕 감독의 새로운 '나쁜 남자' 페르소나로 등극했다. 김기덕 감독은 통상 한달 이상 걸리는 배우 섭외과정을 건너 뛰고 단 열흘 만에 캐스팅을 결정할 만큼 처음부터 이정진을 염두에 뒀다. 그리고 김 감독이 찍은 또 한 사람, 바로 이정진과 호흡을 맞출 조민수였다. '잔인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지만 내면은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있는 남자 강도,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어딘가 정체가 묘연한 엄마라는 여자. 두 사람의 충돌에서 오는 거친 심리 변화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남녀배우.' 김기덕 감독의 눈은 정확했다. 김 감독이 자신의 열여덟 번째 영화에서 선택한 '이정진 vs 조민수 조합'은 이들의 소름끼치는 연기력으로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 감독은 특히 놀라울 정도의 흡입력을 보여준 배우 이정진에 대해 "백지와 같은 배우, 그래서 그 백지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배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전방위 활동

스크린에서의 파격 변신은 브라운관 이미지에도 변화를 가져다 줬다. '백년의 유산'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남자의 매력은 더욱 반짝였다. 그동안 연기한 20여 편의 영화, 드라마 속 이미지가 농축되고 숙성된 결정판인 셈이다. 예능프로그램에서의 자신감도 이전보다 과감해졌다. MBC Every1의 '무한걸스'를 비롯해 Mnet '꿈꾸는 광고제작소', KBS 2TV '남자의 자격' 등 그가 거쳤던 예능 무대는 모두 예상 밖 호응을 얻으며 이슈를 만들었다. 그는 또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몸은 탄탄한 근육

질의 남자다. 윤기 나는 피부에 도드라지게 하얀 이를 가진 이정진은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런닝머신 운동했습니다 자 촬영장으로 고고'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해 활력의 사나이 면모를 직접 과시하기도 했다.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전방위 활동으로 다재 다능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배우 이정진을 만나 그의 건강과 연기 세계 등 일상을 물었다.

데뷔 14년째인데 자신만의 연기관이나 각오가 있다면? 좋은 시나리오를 접하거나 마음이 끌리는 역할이 있을 때 작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연기를 할 때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매번 주어진 배역에 올인하는 편이다. 특정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배역이나 작품으로 대중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도돌이표 이정진'이란 실망을 줄 수가 있다. 팬들이 연기자로서 저를 떠올렸을 때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많은 시도를 해 보고 싶다. 연기 공백기나 휴식 중엔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한다. 성격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틈만 나면 지인들과 어울린다. 작품할 때에는 미처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좋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셈이다. 대중 스타로 이미지가 깨끗한 연기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체력 관리라고 믿는다.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너무 매이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 팬들은 외형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연극이나 영화 등 다른 연기자 작품을 자주 보는 편인가? 물론이다. 되도록 다른 배우의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한다. 작품을 볼 때에는 나라면 그 배역을 어떻게 표현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도 한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작품 자체를 즐길 때도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과 식습관도 궁금하다. 평소 건강관리에 꽤 신경 쓰는 편이다. 연기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엔 수면 시간도 부족할 만큼 스케줄이 빡치지만 운동만큼은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한다. 평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음식은 일단 가리지 않는다. 맛있는 건 다 좋아하고 잘 먹는다. 간혹 몸매관리를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도 단순한 단식이 아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따져서 골고루 섭취한다. ☺

